NBA 챔피언 결정전에 한번도 진출하지 못한 팀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토론토 랩터스가 2018-2019시즌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면서 30개 구단 가운데 챔피언결정전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한 팀은 6개로 줄었다.

토론토는 이번 시즌 동부 콘퍼런스 결승에서 밀워키 벅스를 상대로 2패 후 4연승을 거두며 1995-1996시즌부터 리그에 참여한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챔피언결정전에 올랐다.

NBA 30개 구단 중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처럼 최근 5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오르는 팀이 있는가 하면 몇십 년이 지나도록 챔피언결정전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한 팀들도 있다.

지난 28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NBA 30개 팀 가운데 6개 팀이 챔피언결정전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중 가장 오랜 기간 챔피언결정전과 인연을 맺지 못한 팀은 LA 클리퍼스다. 1970년 창단한 LA 클리퍼스는 올해까지 49년간 챔피언결정전에 나가지 못했다. LA 클리퍼스는 챔피언결정전은 고사하고 콘퍼런스 결승에도 한 번도 못 올라갔다.

덴버 너기츠도 이에 못지않다. 1976-1977시즌부터 NBA 리그에 참여한 덴버는 1984-1985시즌과 2008-2009시즌 두 차례 서부 콘퍼런스 결승에 올랐지만 두 번 다 LA 레이커스의 벽에 막혔다. 덴버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서부 콘퍼런스 2위를 차지, 챔피언결정전 희망을 부풀렸으나 플레이오프 2회전에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 3승 4패로 패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구단주인 샬럿 호니츠도 1988-1989시즌부터 지금껏 챔피언결정전은 늘 '먼 나라' 얘기였다. 이 팀도 동부 콘퍼런스 결승 진출 한번 없는 신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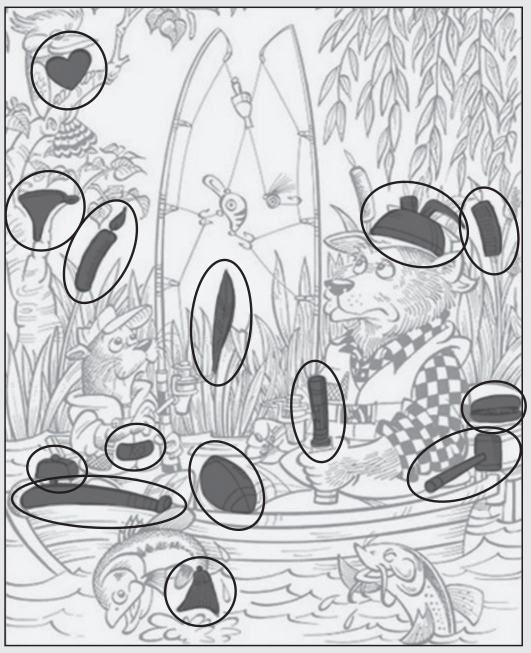
샬럿보다 1년 늦은 1989-1990시즌에 데뷔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도 마찬가지다. 케빈 가넷이 팀을 이끌던 2003-2004시즌 서부 콘퍼런스 결승까지 올랐지만 당시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가 버틴 LA 레이커스에 패했다.

2004-2005시즌부터 2016-2017시즌까지 1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하다가 2017-2018시즌 모처럼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나 2018-2019시즌 다시 정규리그로 시즌을 마감했다.

▲ LA 클리퍼스는 올 시즌도 챔피언결정전과의 인연을 맺지 못했다.

토론토와 함께 NBA 입문 동기인 멤피스 그리즐리스도 아직 챔피언결정전에 나간 적이 없고, 2002년 창단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앞서 언급한 팀들에 비하면 아직 챔피언결정전에 나간 적이 없다고 불평하기는 이른 편이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 숨은그림찾기 문제는 P22에 있습니다.

"정상급 골프 선수들 US오픈 출전 거부 논의했다"

세계 최정상급 골프 선수들이 US오픈에 단체로 출전을 거부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미국골프협회(USGA)의 독단과 전횡에 분노한 최정상급 선수 상당수가 올해 US오픈에 출전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선수는 전날 골프다이제스트와 인터뷰에서 "2016년 US오픈 이후 10명에서 15명의 선수가 US오픈을 거부하자는 뜻을 밝혔다." 고 폭로했다. 'US오픈 파업' 을 전한 이 선수는 PGA 투어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는 정상급 선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US오픈 출전 거부 의사를 드러낸 선수 가운데 더스틴 존슨(미국)과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선수는 "우리가 출전하지 않으면 대회도 없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US오픈에 대한 선수들의 반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PGA투어와 유럽프로골프투어 등이 메이저대회로 인정하는 US오픈은 대회 주최, 주관, 운영은 USGA가 맡는다. USGA는 US오픈 때면 '가학적' 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큼 혹독한 코스 세팅으로 선수를 괴롭힌다. 깊고 질긴 러프, 딱딱하고 빠른 그린, 좁은 페어웨이, 긴 전장은 US오픈 개최 코스가 갖춰야 하는 필수 항목이다. 선수들은 버디 사냥보다는 보기를 피하려 쩔쩔맨다.

한 선수는 "USGA는 언더파 우승 스코어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면서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 미친 짓" 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선수들은 USGA가 PGA투어 전문가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코스 레이아웃과 핀 위치를 결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US오픈 TV 중계권료가 FOX가 중계를 시작한 2015년부터 3,700만 달러에서 9,300만 달러로 치솟았음에도 상금 규모는 커지지 않은 것에도 불만을 갖고 있었다. USGA는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28일 US오픈과 US여자오픈 상금을 50만 달러씩 증액시켰다.

올해 US오픈은 다음 달 14일부터 나흘 동안 캘리포니아주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다.

스마트한 기능성 섬유 향수 hook
LIFESTYLE FRAGRANCE

99% 향균/탈취효과 로 후각을 괴롭히는 섬유나 신발, 공기중의 오염된 냄새를 제거하고 은은하고 독특한 향 그대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성 섬유향수!

섬유용 차량용 신발용 애완동물용 헤어용

대한민국 좋은제품 HIT500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히트500상품선정

출시 3개월만에 한국 유명백화점, 디자인샵, 면세점등 입점 완료!!

구입처
지구촌약국 EARTH VILLAGE PHARMACY
714.228.9212
5161 Beach Blvd. #C
Buena Park, CA 90621
젬젬
949.250.9500

*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hook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